社 說

대학문화의 새 장 열어야할 대동제

— 주체적 참여 절실한 놀이마당

푸르름과 밝은 햇살, 꿈과 희망이 넘치는 5월의 봄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눈물과 아픔의 상처로 얼룩진 5월의 봄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들의 5월이 고통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어도 젊음의 5월, 신록의 푸르름은 여전히 아름답고 신선하다. 특히나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젊음이 하나되는 5월 대동제는 우리들의 5월을 더욱 아름답고 푸르게 가꾸어준다.

오히려 5월의 아픔과 눈물을 젊음의 장에서 대동단결의 놀이들을 통해 씻어내고 우리들을 새로운 의지로 엮어낼 수 있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5월의 대동제

대학의 대동제는 80년대에 들어와 크게 그 성격이 달라졌다. 낭만과 젊음의 향연이 강조되어온 과거의 축제, 한 학기의 중간에 자리잡은 휴식기의 성격을 지닌 축제, 그래서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향락적이라고 비판받아왔던 기존의 축제의 틀을 벗어나 대동제라는 새로운 형식의 놀이마당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렇게 8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자리잡기 시작한 대동제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성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던 외래문화를 배격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속놀이등을 통해 대학의 대동제는 새로운 민족문화의 한마당이 되어왔다.

또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동놀이들을 통해 학생자치조직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소비지향적이고 향락적인 놀이문화가 주를 이루던 기존의 축제문화를 탈피하고 새로운 민족문화, 민속놀이문화로서의 대동제로 자리잡게 된것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5월의 대동제가 일반학생들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고 말하기에는 아쉬운점이 적지 않다.

공연중심의 보여주기식의 대동제로 인한 학생들의 수동적 참여, 많은 학생들이 갖는 대동제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참여부족, 함께 어울어져 놀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 준비주체인 총학생회와 각 과별 단위행사의 유기적 결합부족등은 올바른 대동제의 뜻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대동제, 진정한 대동놀이, 대동문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청된다.

이번주에 시작되는 5월 대동제.

5월의 푸르름속에 우리들의 대동제는 더 알찬 틀로 대학문화를 재창출하는 새로운 대동놀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념과 지역적 한계 극복해야"

— 올바른 야당통합을 위한 제언

민정, 민주, 공화 3당이 엉성하고 아리송한 민주자유당으로 통합되면서 야권통합은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통합 문제는 민자당 탄생을 계기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탄생하면서 확실하고 중단되지 않은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국민은 야권통합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고 또한 요구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3당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야권통합의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거대하지만 시대착오적 여당인 민자당이 민주화와 개혁의 기수가 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상 민자당은 탄생 초기부터 오히려 국민의 절실한 염원이나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이 민주화와 개혁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럴수록 야권통합은 더욱 긴박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다시 민주세력과 비민주세력의 대결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민주세력과 비민주세력의 대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국민은 이러한 대결의 양상이 하루속히 해소되고, 보수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정치구조의 출발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무산시키고 민주세력과 비민주세력의 대결로 정국을 되돌려 놓은 것이 3당 통합이다.

그렇다면 야권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분명해진다.

야권의 대동단결로 국민의 염원인 민주화와 개혁을 촉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며 요구이고 기대인 것이다.

현재 평민당, 가칭 민주당, 그리고 재야세력 사이에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순탄하게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다. 지역적 배경을 달리하고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야권통합은 실제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그러나 야권의 여러 세력들은 지역성과 이념을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야권통합이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한 인물의 변신과 변절에 의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포장하는 미봉책

—— 재벌기업의 토지매각을 바라보며

사론

재벌기업의 토지매입이 1년간 동결되었으며 5·8조치로 인해 비업무용 토지를 6개월내에 매각하지 않을시 부동산신규 취득 승인·여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여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부여당이 스스로 규정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한방편으로 물가폭등, 증시침체와 수출부진등의 원인을 기업의 부동산투기로 돌려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유도 시중자금을 증시로 환류 증시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5월에 30대 재벌 기업의 부동산중 비업무용은 1.2%라는 은행감독원의 발표가 있었던 반면, 지난 9월에는 43.3%에 이르는 땅이 비업무용이라는 감사원의 추계가 나왔었다. 허나 지난 9월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던중 특정 재벌의 로비라도 있은 듯 갑자기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되었다.

원장과 사무총장, 국장등이 대통령 임명이니만큼 감사원이 운영상 한계성을 지님은 당연한 현실이라 할수있다. 감사원의 통계에 임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된 땅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은 43.3%을 웃돌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난해 30대 재벌이 사들인 부동산만도 장부가액 2조4천억원어치나 된다는 사실은 기업이 정부발표의 토지공개념제도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86~88년사이 일반적으로 호황을 누려왔다는 평가에도 불구, 기업들은 생산부문으로의 투자는 멀리하고 땅투기에 열중해왔다는 증거로 9백75개 상장기업대상의 한국은행 조사발표를 들수있다. 이에 따르면 토지와 증권투자 비중이 85년 9.9%에서 88년 17.8%로 늘어난데 비해 설비·재고 투자는 78.8%에서 69.8%로 줄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실들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제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에 원화절상까지 겹쳐 현재의 경제난국설을 불러일으켰다.

재벌에대한 정부의 특혜가 기반산업부족의 초기 단계에는 필연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간 기업들은 정치를 등에 엎고 자기 배를 채우는 식의 기업윤리와는 무관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자는 '내돈으로 내땅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고 말할런지도 모른다. 허나 그돈은 국민을 착취한 것이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국민의돈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결국 이것도 일종의 '거대한 사기'라 할수있다.

그러나, 모처럼 정부는 국민의 편에라도 선듯, 재벌기업에 경고장을 보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아닌 부동산 투기등을 통한 돈벌이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이에 대한 10대 재벌의 대응은 1천5백69만평(여의도의 약20배)의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그룹회장이나 친·인척 명의로된 소유지가 전혀 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생색내기에 급급할뿐 결의문을 통해 밝힌 '노동자주택지원', '노동자복지증진', '건전한기업윤리확립'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치 역시 감사를 중단하듯 도중에 중단할 수밖에 없는 단지 몇몇의 재벌기업에 기반하는 정부·여당의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또다시 번복의 우려가 있는 '엄포용'의 임기응변식 미봉책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다급할땐 기업이라도 다그쳐 '먹은 것을 토해내라'는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정부·여당이기에 기업이 활동위축을 명분으로 규제완화 요구시 또다시 '건망증'을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가령,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완료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 계약만 한채 매각 대금 지불과 소유권 이전을 미룰 소지도 있으며 매각 대상화된 부동산 또한 공급가 늘어 더이상의 가격상승억제의 의미뿐, 실질적인 토지 재분배의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며 부동산 가격이 요즘처럼 높아진 상태에서의 매각은 손해를 볼리는 만무, 돈과 토지의 일시적 순환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시기 대두되는 경제 위기가 토지 매각에 의해서 어느정도 무마될런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토지매각은 돈없는 국민들에게는 관심 밖이라는 사실을 주지할때 근본대책이 될수 없음은 분명하다.

말로만 떠드는 정부가 신뢰받지 못함은 당연한 이치이듯이 생산력의 증대에 기반하지 않는 돈이 돈을 버는 식의 허공에 붕뜬 증시가 폭락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외환은행 민영화 유보'나 '증시안정기금 4조조성'으로 경제파탄을 조금은 지연시킬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증시에서 돈을 마련 '부동산 사재기'를 하는 기업, 일관성없는 정책제시기계인 정부, 정경유착이라는 불신감등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6공의 '믿어달라'는 말을 믿을 사람이 더이상 없음은 분명하다.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와 종합토지세개악 등으로 국민의 불신감만 고조되는 현실에서 전체 사유지의 65.2%를 상위 5%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의 체제유지와 기업생존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다시금 제기된다.

한해의 중반기에 들어서지도 않아 15명의 사람이 전·월세값을 마련못해 목숨을 끊는 나라에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아닌가 하는 기우가 생긴다.

수출부진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어도 부동산가격은 평균 32%의 상승률을 보이는 사회에서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이 가장 손쉽게 이윤을 남길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라는 것은 재벌들이 도덕군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생산자금의 투기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등이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말로써 행동하기 보다는 행동으로써 말할수 있는 정부·여당'을 기대함은 진정무리인 것일까?

〈김유선 記者〉

재벌의 비생산부문 투기, 현경제위기 촉발

신뢰 회복위한 정책의 일관성 요구돼

"적반하장"

체중덕에 떠나지 않는 '豚'

가로되

5월주제 '별명'

이제는 별명계에서 잊혀지는가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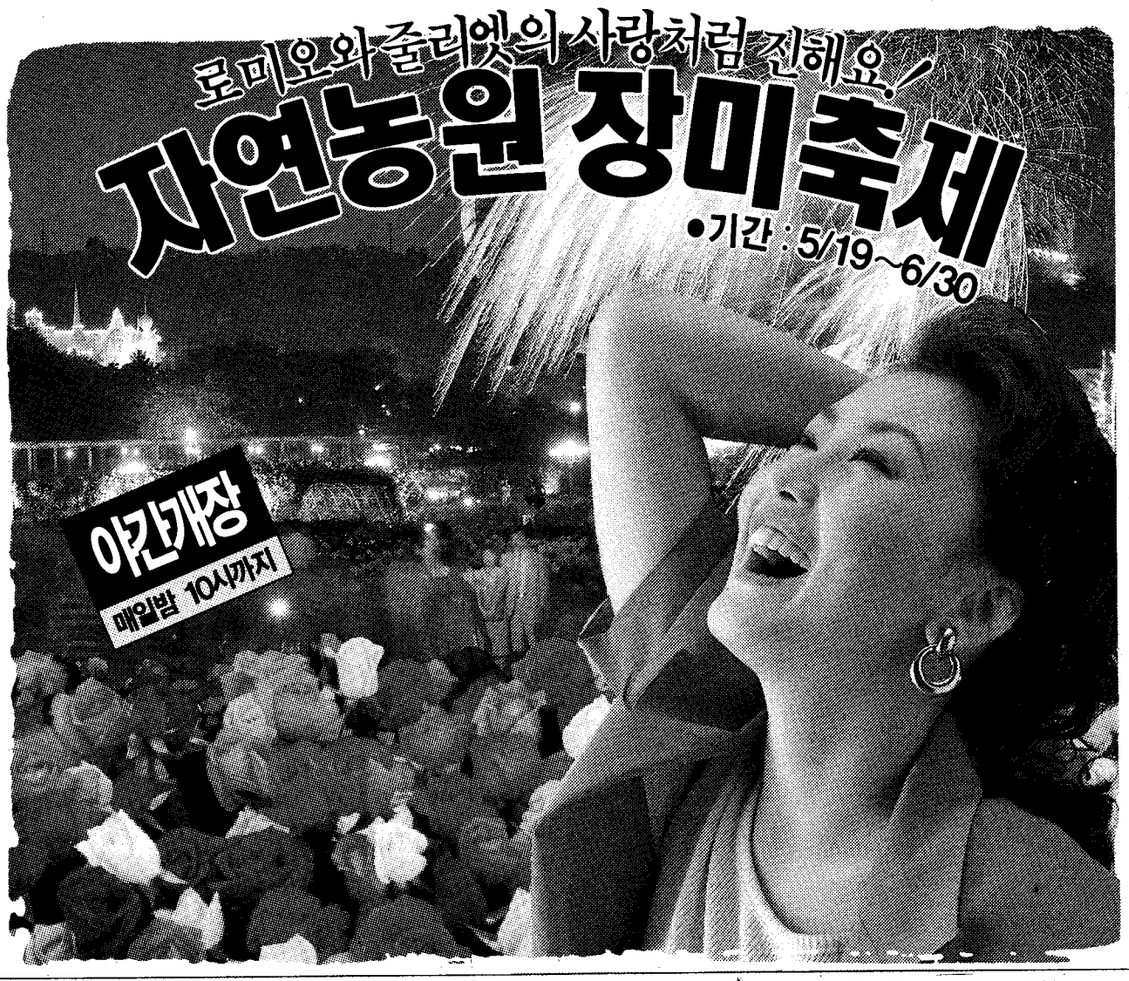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한두가지의 별명은 있다. 별명의 종류는 신체적 특징에 기인한 것, 성격적 특징에 기인한 것, 언어나 행동의 특징에 기인 한 것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모두가 그 사람을 대표하여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이고 결례가 되는 수도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유머러스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한다. 특히 국민학교 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의 별명을 지은 것을 보면 감탄할 정도로 기가막히게 그 선생님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어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나도 어렸을 적에는 산돼지라는 별명이 있었다. 아마도 그 시절 40㎏이 넘는 거구에(?) 씨름판 에서나 빛을 볼 뚝심으로 인해 얻은 별명이었겠지만 이 별명 덕분인지 몰라도 그 흔한 기마전에서 단 한번도 말을 타보지 못하고 항상 말 노릇만 했다. 원래 돼지란 둔하고 다소 미련하다는 뜻도 있어서 이 별명을 무척이나 싫어했으나 좌우지간 이 별명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애용하던 호칭이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후 이 별명은 늘어만 가는 체중과 더불어 한술 더 떠서 하마로 격상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요즈음 이제는 별명계에서 완전히 잊혀진 인물인가 했는데, 함께 근무하는 진교수께서 갑자기 요상한 별명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화돈선생 글자 그대로 꽃 돼지 라는 뜻이다. 항상 80㎏이 넘는 체중을 지탱해주는 내 발바닥을 걱정해주시던 자상한 분께서 붙인 별명인데, 그흔한 말로 역사의 아이러니로 인해 다시 원래의 별명으로 환원 되었다고나 할까? 이 별명을 붙여준 진 교수도 별명이 희안하다. 하도 다방면에 박식하셔서 그런지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은 박사보다 한끗이 더 높다는 '진도사'이다.

나와 오랫동안 친교를 맺고 있는 시립대학교의 노모 교수와 80년 격변기 대학이 휴교령으로 쉬고 있을때 함께 충남 금산군 도파리로 낚시를 간 일이 있다. 쏘가리를 낚기위해 한참 낚시대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만 루어가 잘못 날라가서 노 교수의 팔에 꽂혔다. 세 가지로 된 낚시바늘이 팔에 꽂혔으니 본인의 아픔이 매우 컸을 터인데도, 이 고집쟁이 노 교수는 병원에 가야한다는 강권도 뿌리치고 굳이 마취를 한답시고 소주를 병채로 꿀떡꿀떡 마시더니 드디어 주머니 칼을 꺼내 생체수술을(?) 시도한다. 바늘이 빠지긴 빠졌지만, 그뒤로 서울로 오는 찻속에서 계속 마취용술에 취해 비몽사몽 횡설수설…, "나는 쏘가리다. 네가 나를 쏘가리로 낚았으니 나는 쏘가리다…", 차 안의 모든 사람이 폭소를 자아내고 요절복통했지만 막무가내…, 드디어 이친구 나한테 얻은 별명이 '노+가리', 노가리선생이 되었다. 그런데 그뒤로 시립대학교 출신이 우리 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치러왔다. 면접도중 내가 불쑥 노가리 선생 잘계시는가 했더니 드디어 이 말의 시립대학교로 직행 이제는 학생차장과 교무차장을 지내 학내 안면이 넓으신 이분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다.

박 종 국
〈공대교수·전자공학〉

별명은 간결하고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때 수명이 길고 여러 사람의 인상에 남는다. 그러나 별명이 가져야 할 예의는 있다. 지나치게 악의적이라든가 고의성이 짙으면 듣기도 거북하고 본인도 괴롭다. 그러나 별명은 다분히 자연발생적인 경우가 많으니 별명을 받은 사람이 평소 언행에 조심하고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했어야 좋은 별명을 얻지 않았을까? 5공시절 숫하게 오고간 많은 정치인들의 별명들이 이점 여러가지로 시사하게 해준다.

●문의처 : 745-0482, 7094(직통) 234-6171~4(교환)
33-0088(용인) 85-7388(전주)



마리아 칼라스의 사랑을 찾으세요!
200만 송이의 장미가 화려한 사랑의 유혹을 띄우는 자연농원 장미축제! 화려한 조명, 달빛에 물든 장미와 함께 하는 초여름밤 낭만의 축제, 자연농원 장미축제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보다 멋진 사랑을 나누세요.

금세기 최고의 마술사가 왔다!

마크월슨 마술쇼 (기간:5/1~8/27)

마술 월드컵 참피온이 펼치는 최첨단 마술의 세계! 당신을 세계최고의 마술쇼로 초대합니다.

용왕의 보물을 찾아라!

세계 산호조개전 (기간:4/1~6/17)

세계 92개국 6,500여종의 산호·조개들이 깊은 바다속 환상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특별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년분의 즐거움을 한장의 카드로—
자연농원 연간회원권

입장에서 부터 모든 놀이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있습니다. 정문에서 신청하시면 곧 발급해 드립니다.

구 분		회원권
개인	대 인	₩24,000
	청소년	₩18,000
	소 인	₩15,000
가족회원		₩65,000

*가족회원은 대인2人 중학생이하 소인2人 기준입니다.

장미축제기념 특별행사
●MBC-AM 별밤 공개방송(5/27)
●직장인 유니폼 콘테스트(6/2)
●소년중앙 개그 콘테스트(6/3)
●MBC-FM 밤의 디스크쇼 공개방송(6/9)
(협찬 : 제일합섬, 아그파 필름)

감미로운 클래식과 아름다운 대중음악 선율의 하모니 –

서울팝스 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하성호박사가 지휘하는 서울팝스 오케스트라의 매혹적인 연주는 당신의 주말오후를 자연속의 음악세계로 안내합니다.

야간개장 특별공연 (오후 6시부터)

가수·록그룹공연, 사물놀이, 피아노3중주와 통기타 앙상블
신중현의 경음악 연주회, 동물탈 퍼레이드
*불꽃놀이(주말·휴일)

장미가요제 (5월~10월, 매주 일요일)

사랑과 낭만이 넘치는 장미축제 속에 "가수의 꿈"이 피어납니다.
친구·연인과 함께 서로서로 응원도 하며 함께 즐겨보세요.
●참가대상 : 19세~30세 남·녀
●문의처 : 736-7427(킴레코드사), 751-5407(영레이디), 745-0482(자연농원 판촉부)

자유이용권
●17 : 00시 이후 입장하시는 분께는 특별할인 혜택 및 예쁜 장미꽃을 드립니다.

	주 간	야 간
대 인	₩11,000	₩8,000
청소년	₩ 8,500	₩7,000
소 인	₩ 7,000	₩5,000

여러분의 편의를 돕고자 신세계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삼성신용카드 본사에서 고객우대 자유이용권을 특별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통편
●금성관광 741-2201~5(동대문 이스턴호텔 옆) ●동양고속관광 753-0011~4(동방플라자 옆) ●동성관광 675-3800(영등포) 963-3800(청량리) ●천일고속관광 735-1001(광화문 네거리) ●경남관광 739-0011~20(광화문 네거리) ●대원관광 764-7788(종로5가) ●스마일관광(537-8012(강남뉴코아) ●민속관광 730-7511(종로2가) ●한남관광 734-4141(종로 YMCA옆) ●초원관광 479-0301(유니버스옆) ■동성여행사 44-6471~2(수원역 광장) ●인천세진관광 82-8233(주안시민회관옆) ●부천한서관광 62-5001(부천역) ■경남여객 797-8080(용산시외버스터미널) ■동부고속(강남 고속터미널 영동선) ●임해관광 366-3111~3(광주구역 시거리) ●941-0031(광산구) ●대한관광 85-4545(전주시청옆) 3-6600(군산시청옆) 3-8853(이리역전)

자연의 나라 동화의 나라 中央開發(株)
용인자연농원